EIAK소식

공진청장 초정 QM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10월 27일 팔레스호텔에서 신국환 공진청장 초청 품질경영(QM)확산대책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영자 간담회는 본회 회원사 100여개사가 참석 열띤 관심을 보였는데 새로운 국제인증으로 부각되고 있는 ISO 9000시리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ISO의 인증실시를 위한 국내 인정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품질보증 규격에 관한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고 신국환 공진청장은 밝혔다.

또한 산업의 선진화와 경영의 고객지향적 기업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일본식 품질관리(QC)에서 탈피해 구미주도의 품질경영(QM)으로 전환 전사적·종합적 품질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오는 '93년부터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업원 50인 이상의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직 근로자, 관리자 및 경영자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기술분임조를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유도해 나아가기로 했다.

공장자동화 자문단 발족, 무료서비스 실시

본회 산하 기구인 공장자동정보화추진협의회(회장 : 李大遠 삼성항공 대표이사)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92년 11월 4일(수) 팔레스호텔에서 전문 컨설턴트 16명으로 구성된 공장 자동화 자문단 발족식을 갖고 11월 이후 2개월에 걸쳐 1차로 자동화 자문을 신청한 한국전자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무류자문에 들어갔다.

우리 제조업계는 국내적으로는 지난 몇년 동안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높은 임금상승 및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약

화 되었고, 특히 중국, 태국 등 저 임금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의 추격으로 우리의 해외 시장이 급속히 잠식 당하는 등 국내 외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정부와 업계에서는 그 동안 첨단기술 확보에 의한 고 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공장 자동화 정보화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인력, 자금 부족 등으로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협의회는 '

91년 이후 실시하고 잇는 제조업계 자동화 실태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화 기술 및 정보 부족이 제조업계 자동화 추진상의 큰 애로점으로 대두됨에 따라, 각 분야의 자동화 추진에 경험을 갖고 있는 자동화 전문 엔지니어에 의한 부담없는 기술자문을 실시함으로서 제조업계에의 자동화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타개하고, 나아가 제조업계의 자동화를 촉진키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동 자문단을 구성 운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 자문단의 자문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제조업계의 자동화 추진에 필요한 생산현장 진단 및 자동화 기획, 가공, 조립, 검사, 포장, 물류 등 자동화 전 부문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대상을 전자업계에서 전 제조업계로 점차 확대해갈 것으로 알려져 제조업계의 자동화에 따른 기술적 문제점 해소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디스플레이 분과위원회(위원장 : 삼성전관(주) 박경팔 사장)는 지난 9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기(주) 등 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DY용 Beam Rotition 보정 Magnet 표준화 규격에 대해 협의했다.

코넥터분과위원회(위원장 : (주) 우영 박기점 사장)는 지난 10월 7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컴퓨터용 Mother Board에 사용되는 코넥터의 공급활성화 방안과 Pin Header Connector의 표준화 규격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컴퓨터용 MB의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넥터 공급업체 각사가 제조원가절감과 영업활동 강화로 대처해 나아가기로 했다.

모터분과위원회(위원장 : 한국써보(주) 한정섭 사장)는 지난 10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등 수요업체 3개사, 공급업체 삼성전기(주) 등 3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VCR용 Capstan Motor, Drum Motor의 표준화 규격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 했다.

컴퓨터산업협의회

PC주기판분과위원회(위원장 : 태일정밀(주) 정강환 사장)는 제18차 PC주기판산업 분과위원회를 지난 10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92년도 상반기 수입 및 국내생산 현황 및 동향을 점검하고 택산전자(주)를 신규가입 회원사로 승인했다. 한편 23회 한국전자전 공동참가와 Notebook PC 공동개발과 관련 각사 의견을 교환했다.

모니터수출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삼성전관(주) 유기탁 과장 등 5명이 참석 3/4분기 모니터 수출동향 및 '93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CRT재고물량 상호구매 등과 관련 협력방안을 협의 했다.

컴퓨터특허협의회

협의회는 지난 10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현대전자산업(주) 이성우 과장 등 6사 6명이 참석 HYATT 특허공동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HYATT 특허 대리인에 Philips, 대상특허에 마이크로프로세서, LCD 등 23건을 채택하고 국내 주요업체는 회의를 통해 Philips와 계약을 체결하고 미체결사항은 외국출장시 외국업체들의 동향을 파악한 후에 회의 개최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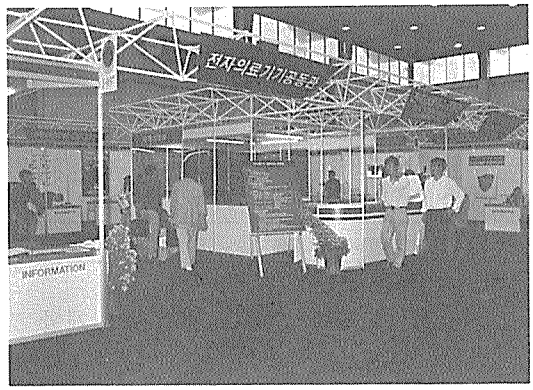
통신산업협의회

Fax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본회 회의실에서 (주)금성사 구용근 소장 등 17명이 참석 Fax 수입선 다변화 관련 1,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Fax 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업계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동통신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본회 회의실에서 금성통신(주) 송선묵 부장 등 6명이 참석 이동통신 국내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기기 국내 판매현황 및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외국산 제품에 대해 공동판촉전략, 형식검정시 A/S망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삽입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

전자의료기기산업협의회(회장 : 김준경(두산산업))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23회 한국전자전람회에 전자의료기공동관으로 참가하여 의료장비의 대국민 홍보에 기여했다.

한국종합전시장에서 6일간 열린 이 전시회는 가전관, 부품관, 산업관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기 공동관은 산업용기기관에 전시되었다.

한편 동기간 중 전시된 전시품목을 살펴보면 두산산업(주)의 X-선자동현상기, (주)메디슨의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주)동아X-선기계의 X-선진단장치, 중외기계의 무승 및 (주)신흥의 치과용기기가 전시되었는데 국내 일반 관람객과 병원 관계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